

성안드레아 김대건과
바로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

기도서 509면 (B해)
제 1 독서 : 지혜 3, 1-9
제 2 독서 : 로마 8, 31b-39
복 음 : 루가 9, 23-26

숲 정 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
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
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
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
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루가 9, 23-24)

강 론

소 리

순교자는 누구인가

김 진 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새는 제 노래 소리로 자기를 표현한다. 그래서 뻬꾹이의 노래 소리가 다르고 피꼬리의 노래 소리가 다르다. 9월이면 한국교회의 어디서든 순교자의 노래가 들려 온다. 순교자의 노래가 크리스마스 케를처럼 한 철에 부르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순교자의 노래처럼 순교자는 한국 신도들에게 신앙의 이상이요, 목표인 것이 분명하다.

순교자의 노래는 영웅에게 보내는 찬가이거나 오르지 못할 이상의 나무를 향하여 부르는 감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자신도 순교자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확인하는 자기의 노래이다. 그런데도 순교자는 전설의 고향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순교자는 피를 흘려 목숨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일까, 사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르치기를 순교자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피를 흘려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만 순교자라고 불렀던 까닭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하느님은 피를 좋아 하시거나 사람들의 고통을 즐겨하시는 하느님이신가? 그렇지 않다. 세상의 부모들이 그러하듯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그러할 수 없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귀여운 자녀들이다. 피흘리는 순교는 자녀인 우리가 부모이신 하느님의 뜻을 항시 잊지 않고, 몸소 보여 주신 덕행을 실천하고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자 효도하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극단적인 우리의 표현인 것이다.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 선조는 순교를 이렇게 말하였다. "부월(도끼)에 죽는 이는 잠시의 치명이지만, 은수(隱修), 고수자(苦修者)의 공부(공부)는 곧 일생의 치명이다"고 하였다.

은수자와 고수자는 누구인가, 사리사욕과 여러 가지 잘못된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자기를 극복하고자 고신극기의 생활을 매일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느님과 깊은 일치(一致)를 이루고, 하느님을 일상생활에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가 순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항상 빛나기만 하는 사람의 뜻, 하느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기의 편견, 제 욕심, 제 생각과 계획, 제 영광을 뒤섞어 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생각과 계획을 세상의 질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순교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활동,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이루겠다는 헌신노력에 까지 조심스런 성찰과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순교는 한 순간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씨의 올림픽 개회식 불참

5공화국 망령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올림픽 개회식 참석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찬반논쟁을 불태웠었다.

야권에서는 "인간적으로 참석하고 싶은 것에는 동정이 가지만 5공화국 비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막식 불상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두환씨의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반대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으나 5공비리로 인한 국민감정이 복잡하다"며 본인 스스로 불참해 주기를 바랐다.

이들 모두가 전두환씨가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관중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지고 그 모습이 위성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이었다.

"나의 참관여부로 잠음이 일고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전 전대통령은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박세제 올림픽준비위원장 공동명의로 개회식 초청장을 받고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쟁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올림픽을 유치했고 자신이 말했듯이 재임기간중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전직 대통령이 박수는 커녕 개회식에조차 참석하지 못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우리 국민은 순하고 여리다. 그 만큼 정이 많고 용서할 줄 아는 국민이다.

전두환씨가 진즉 자신을 비롯 친인척들의 버리를 털어놓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더라면 이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직접 해명을 하겠다니 뒤늦게나마 기대해 본다.

우리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이같은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솔직함만이 화해의 길이다.

숲 정 이 산책



"곧"자가 빠지도록 기도하자.

전주교구 시복시성 청원 대상 순교자 2

(3) 유향검(아우구스띠노)

1754년 전주 초남리(현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부락)에서 아버지 유동근과 어머니 전주 이씨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을 뿐 아니라 덕망과 막대한 재산으로 인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는 유럽에 종사하며 과거시험에 전념하던 중 자기와 같은 남인 소장층 학자들의 우두머리인 권철신과 그 형제들이 천주교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학문의 대가인 그들이 심취한 천주교라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기도 양근고을의 권철신의 집을 찾아갔다. 권철신과 아우 권일신에게 교리를 배우고 1784년 늦가을에 권일신을 대부로 하여 아우구스띠노라는 이름으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 전라도의 첫 신도가 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 가족들, 재산 관리인들, 종들 뿐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786년 3월 효율적인 복음선포를 위해 가정직제도를 설정, 유향검은 신부로 임명받아 전라도 선교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1787년 유향검은 교회서적에 깊이 연구하던 중 합법적으로 사제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사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면 독성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국교회의 책임자인 이승훈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리며 즉시 성사집행을 중단토록 하였다. 이로인해 1795년 4월 힘겹게 한국의 첫 선교사로 주문모 신부를 영입케 되었다. 그러던중 유향검은 평소 큰아들 유중철(요한)로부터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기 위해 평생 동정생활을 결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조상의 대를 잇는 효의 사상이 으뜸이었지만 아들과 같은 뜻을 가진 이순이(루갈다)와 형식상의 부부로 맺어주고 그들이 동정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었다.

1801년(신유) 박해가 일어나 유향검은 전라도의 천주교 괴수라 하여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과 고문을 받은 후 대역 부도죄라는 판결로 1801년 9월17일 전주 남문밖에서 참수형을 받았다.



성서와 함께

19. 성서시대의 역사 (A) : 성조시대

이 글의 목적은 성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서독자로 하여금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을 이룬 역사의 줄거리를 대충 살펴 보자는 것이다. 창세 1-11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역사적 연구에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이 그 배후에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노아의 홍수배경엔 실제 홍수사건들이 수차례에 걸쳐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홍수 이야기로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작성해 낼 수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조설화들로부터 역사에 대한 고찰을 시작한다.

성조시대의 역사는 창세 12-50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에집트로 진출하는 이야기로 끝난다. 고대근동의 문헌들 가운데 성조의 이름과 풍습에 유사한 반유목민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원전 2000년 경에 "비옥한 초생달"을 주름잡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창세 12-50을 역사적 문헌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그리고 그의 열두 아들들로 이어지는 성조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모험담과 전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쓴 목적은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후손들에게 민족적 단

결과 정기를 굳게 지켜나가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성조설화는 이스라엘과 이민족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아람족 곧 시리아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가 그 원조이다(창세 22,20-24). 미디안족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 크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부터 유래된다 (창세 25, 1-4). 열두 부족으로 나뉘어진 이스마엘인들은 아브라함이 신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탄생시킨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창세 25,12-16). 이런 식의 설명은 물론 타민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다분히 인위적이며 자기본위적이다. 따라서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당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창세 12-50을 전혀 황당무계한 기록, 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문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조 이야기 전체 뒤에는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신앙인들의 진실한 삶이 자리잡고 있다.

그네들 가운데 으뜸은 역시 아브라함이고 그의 믿음에 충실한 삶이 창세 12-50의 근본바탕을 이룬다.

성조설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으로써 하느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야훼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의 진실한 믿음 위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적 존재와 긍지를 갖게 되었다.

각종사무기 종합취급점
복사기·팩시밀리·전자타자기·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기 및 사무기기 전문복 취급
(주) 신도리콕 전주특약점
신도 O A 상사
오 증원 (이오스팀) · 이 정운 (이젤리)
☎ 6-9666, 84-3678, FAX. 83-1836

동방지업사
모노톤·장판·도배전문
박 홍숙 (요셉)
조 옥금 (아베)
전주시 태평동 1가35의 19
(전매청 후문상가 옆)
☎ 74-2714

대중정육점
식육도산애(주문배달)
쇠고기, 삼겹살, 통심, 생닭
장 정숙 (데레사)
남부시장 채소약감 앞
☎ 사) 84-1897
자) 82-7385

교 구 소 식

전주교구 5위순교자 시복 시성을 위한 9월 기도와 미사
 ●일시: 9월21~30일 오전10시 30분 ●장소: 치명자산 루갈다묘역

- ※ 원평천주교회 수녀원 축성식: 9월20일 (화) 3시-미사, 4시-축성식, 4시30분-축하연 주례: 박정일 주교
- 1. **축! 전주교구 평협산하 여성연합회 9월 5일에 발족:** 회장-최경숙(중앙), 부회장-김성자(전동), 최명자(인후동).
- 2. **봉사자를 찾습니다:** 성지순례단 안내자로 봉사해 주실 주부님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처-교구청 홍보국(85-0041~43)
- 3. **교구통신 교리 개설에 따른 주부봉사자를 찾습니다.** 연락처-사목국(85-0041)
- 4. **전화번호 정정안내:** 나춘성 신부님(042) 823-4515
- 5. **전주교구성지홍보용 89년 카렌다 제작완료:** ●내용-교구각 성지, 교구사망사제기일, 교구사제영명 축일, 각본당 축성일, 교구행사계획 ●단가: 권당1,000원. 본당, 개인, 단체별 주문 받습니다. (주문시 광고문안 제출하시면 인쇄하여 드립니다.) ●주문처-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85-0041)

■ 이명서 성인 천묘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 ■

장소: 천호성지 일시: 10월 1일 (토) 오전 10:30
 행사내용: 10시30분 유해봉송 행렬 (천호공소), 11시 순교자 현양미사
 12시30분 성인유해 천묘식
 주례: 박정일 주교
 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자가용 정차 제한)

● 추석성묘, 합동연도 및 위령미사 안내

일시: 추석 (9월 25일) 오후 2시30분-합동연도, 3시-위령미사
 장소: 전주지구 교회묘지 (솔개재) 집전: 주교님, 전주지구 사제단
 미사예물접수: 각 본당 사무실 및 묘지관리위원회
 별초사제금 접수: 묘지관리위원회에서 비치한 사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휴게소 설치와 별초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편버스 이용-중앙성당 오후 2시 출발

잡간!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 ①

나눔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성당 댕기면 뭘해, 예수 믿는 놈들 다 도둑놈이더라...” 하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원래 우리 교회의 성장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선망(사도 2, 47)으로 이루어 졌다. 성서는 초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 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 하였다.”

즉 초대 교회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이유는 철저한 ‘나눔’의 생활 때문이었다. ‘나눔’이 있기에 끈끈한 공동체는 성장하는 생명체와 같다. 즉 공동체의 특성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거나 퇴보한다. 결코 정체하지 않는다. 또한 생명체의 최소 단위인 하나의 세포가 자신을 조개 나누어 커가듯이 공동체의 성장 역시 자신을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나누이지 않는 생명체는 이미 죽은 생명체이듯 나눔이 없는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우리 본당은 침체된 본당이라’고 한탄하는 교우들을 만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는 서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본당이 마음과 재물의 나눔이 없는 그저 미사드리는 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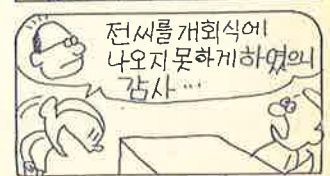
자신을 조개고 으깨어서 우리의 밥과 음식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 처럼 가진 것을 조개어 나누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맛본다. 이에 ‘나눔’이 있기에 살아있고, 나누며 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차례로 소개하려 한다.

아트플라워
 (부업가능)
 * 지점도·꽃꽂이
 - 수강생 모집 -
 한국수조화작가회 전북지부
 민숙임 (마리아)
 보전소사거리 ☎ 86-3660

복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숨쉬는 물 ION-Q
 이온수기중 최초로 유일하게 품질보증 마크인 Q마크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유서품에 유의하십시오.
 신용과 품질보증의 대리점
(주)성봉실업 호남총국 (동홍남동 수송국교앞)
 군산 ☎ 63-0133

요심이 (789) 김병오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전문의 마기환
 한남회(비리사대)
 오거리 국민은행 중앙지점 앞2층
 ☎ 85-2203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리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종합화장품백화점
 (종합선물의 집)
 20~40% 할인
 * 결혼세트 특별우대판매
 임영자 (마락레나)
 ☎ 4-0841

☐정음·김제지구 본당소식☐

*** 고창**
 사제관 63-2552 주임신부 **한봉섭**
 사무실 2-2044 사목회장 이면우
 수녀원 2-3529

1. 오늘 매일미사책 2차헌금 있습니다.
 2. 모 일 : 대건회, 다음주-요셉회, 꾸리아, 울뜨레아
 3. 공소미사 : 오늘-동혜원 다음주-신광
 4. 예비신자 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주일낮 11시
 5. 추석합동위령미사 : 봉헌-25일(추석날) 아침6시, 낮10시
 6. 다음주일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7. 성지순례 성대하게 하느님 축복속에 잘 마쳤습니다.
 8. 예비자인도와 정성스런 봉헌으로 성장하는 본당 공동체를!
 9. 주일미사 참례는 의무이고 평일미사 참례는 정성입니다.
 10. 금주전례 : 해설-이경택 독서와봉헌-김영삼 문준숙
 자주전례 : 해설-송기수 독서와봉헌-한재근 유정에
- ☐ 지난주봉헌금 : 185,950원 ☐ 교무금 : 36,000원

*** 부안**
 사제관 83-3435 주임신부 **안철문**
 사무실 2-2232 사목회장 **홍진수**
 수·유 2-3226

1. 사목회 월례회 : 오늘 저녁9시
 2. 꾸리아회합 : 오늘 공식미사후
 3. 추석합동위령미사 :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미사예물음 9월23일 까지 사무실로 접수 바람
 4. 예비자 교리 : 매주일요일 공식미사후 소강당에서 실시
 5. 구역회 : 9월21일 7,8,9구역
 6. 공소미사 : 9월18일 오후3시 등용 25일은 없음
 7. 본당청소 : 3,4구역
- ☐ 지난주봉헌금 : 367,320원 ☐ 교무금 : 194,000원

*** 수류**
 사제관 주임신부 **문선구**
 사무실 43-0581 사목회장 **김태섭**
 수녀원

- ※ 묵주기도100만단 봉헌 : 지난주 묵주기도7,265단 합계983,104단 · 예비자입교89명 · 내당자회개104명
1. 오늘의 모임 : 사목회·상임위원회-공식미사후 교육관에서
 2. 다음주 모임 : 꾸리아 월례회-교육관에서
 3. 다음주는 추석명절 대축일입니다. 먼저 가신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들..... 2차헌금있음
 4. 추석합동 위령미사예물 접수중 : 각 반장님을 통해 미사예물접수 봉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10월30일 견진예정 : 견진대상자 파악및 신청을 사무실에.....
 6. 10월16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한국성체대회 있음.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 지난주봉헌금 : 228,230원 ☐ 교무금 : 544,000원
 ☐ 교육관헌금 : 387,000원 ☐ 미수금 : 131,000원

*** 시기동**
 사제관 32-3282 주임신부 **안윤기**
 사무실 2-2169 사목회장 **신태근**
 수녀원 32-5777

1. 봉사회비납부 : 군중, 꽃동네, 사랑의다리 회원님들께
 2. 성모회, 요셉회 : 공식미사후
 3. 꾸리아회합 : 오늘 오후3시, 레지오 간부님들 꼭 참석바람.
 4. 추석합동위령미사 : 조상님들을 위한 미사예물 먼저 봉헌바랍니다. 2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5.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 29일(목) 12시 축하연(래빈절대)
 (1)축하식 : 25일 10시30분 미사후 단체, 개인별로 예물증정
 (2)축하연 : 추수감사예물 봉헌 미사후 교육들과 함께
 6. 축결혼 : 신랑 유인철군, 신부 김명자 시릴라 양. 12시
 7. 감사 : 성체수녀원 장애자복지기금 마련 행운권판매에 협조하여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8. 성당청소 : 월-평화의모후 토-은총의 모후
- ☐ 지난주봉헌금 : 378,300원 ☐ 교무금 : 502,700원

*** 신태인**
 사제관 4-2444 주임신부 **최상범**
 사무실 4-2024 사목회장 **송대영**

1. 추석합동위령미사 : 25일 10시30분 합동미사 봉헌으로 선열들을 기억 합시다(미사예물 접수-사무실)
2. 사목회, 각 부서 공문확인 서류 결재 : 매주 공식미사후(사무실)
3. 예비자 모집 : 9월 한달동안 정성껏 인도합니다.(예비자카드접수-사무실)

4. 성령기도회 : 매주 수요일 미사후
 5. 차주모임 : 사목회 월례회, 울뜨레아 모임
 6. 감사합니다 : 대건회 100,000원
 7. 영세 : 첫 영성체 견진사건 맞아 가세요.
- ☐ 지난주봉헌금 : 129,000원 ☐ 교무금 : 140,000원

*** 신풍**
 사제관 44-2272 주임신부 **이성우**
 사무실 44-2271 사목회장 **정경이**

1. 오늘의 모임 : 애령회(월례회 결산보고), 울뜨레아회(토의안건 많으니 전원 참석요망) 방지거삼회, 꾸리아회(간부 전원 참석바람)
 2. 다음주 모임은 추석관계로 없음
 3. 추석합동 위령미사 : 미사예물(24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한 가정도 빠짐없이
 4. 구역모임 : 각 구역장 지시하에 적당한날 선정하여 9월말일내로 실시요망(구역미사는 10월 첫주 공식미사할때)
 5. 공소미사 : 용지공소-오늘아침8시, 다음주-백자공소, 아침 8시
 6. 감사 : 견진성사 준비에 많은 협조하신 형제님들(자매님, 성가대, 청년들)
 7. 금주봉사전례 : 김규홍 부부 전례-손주상 저녁 강현미(금주기도 준비-사도의 모후Pr)
 8. 다음주봉사전례 : 고병권 부부 전례-백광석 저녁-최민숙(다음주기도준비-오묘한대교Pr)
- ☐ 지난주봉헌금 : 총 198,020원 ☐ 교무금 : 288,080원

*** 연지동**
 사제관 33-0044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33-0898 사목회장 **허진**
 수녀원 33-2578

1. 오늘의 모임 : 꾸리아 월례회 애령회 성모회 빈첸시오 아빠올로회-공식미사후 정음지구 지혜로우신 동정녀 소년 꾸리아-오후 1시30분
 2. 추석합동미사봉헌 : 다음주일 한 가정도 빠짐없이 봉헌 바랍니다
 3. 중·고학생 예비자 교리 : 매주 토요일 오후3시30분 김다리아 수녀님 지도
 4. 에스델회 : 22일(목) 오전10시30분
 5. 금주성당청소 : 월-성실하신모후Pr 토-복되신모후Pr
- ☐ 지난주봉헌금 : 257,050원 ☐ 교무금 : 291,000원

*** 요촌**
 사제관 44-0152 주임신부 **황인규**
 사무실 44-0151 사목회장 **김치덕**
 수녀원 44-0153

1. 오늘은 애령주일 : 이차헌금 있음
 2. 오늘의 모임 :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3.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18일(일) 공식미사후 많은 기도 바람
 4. 추석합동위령미사 : 25일(일) 미사시간-오전6:30, 11:00, 오후8:00 앞서가신 선열들을 위해 24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5. 성탄반 예비자교리 : 다음주일에 습니다.
 6. 이달의 성당청소 : 상지의 좌, 순결하신 정녀
 7. 울뜨레아 : 19일(월) 저녁8:00 추석관계로 변경합니다.
- ☐ 지난주봉헌금 : 343,930원 ☐ 교무금 : 596,850원

*** 원평**
 사제관 43-0880 주임신부 **전종복**
 사무실 43-4236 사목회장 **오재천**
 수녀원

- ※ 축! 수녀원및 유아원 축성식 : 9월20일(화) 오후3시 주례-박정일주교님 행사(제1부-미사 제2부-축성식 제3부-나눔의 자리)
1. 데레사회, 아브라함회 : 공식미사후
 2. 반모임 : 21일(수) 3구역2반(민정래) 22일(목) 4구역1반(김급순택) 23일(금) 4구역2반(은양경례)
 3. 추석합동위령미사 : 다음주일(25일) 조상님들을 위한 미사예물 미리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4. 성가연습 : 매일저녁8시30분 성당
 5. 수녀원 신축헌금 : 김영순1만원 감사합니다.
 6. 성당대청소 : 공식미사후 신자분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 지난주봉헌금 : 92,470원 ☐ 교무금 : 213,000원